

그루지아의 혁명가에서 소련의 독재자로: 스탈린의 신화와 현실

김 남 섭
(가톨릭대 국사학과)

1. 스탈린 생애 다시 보기

20세기의 다른 “사악한 독재자들”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Иосиф Сталин)은 그가 살았던 당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그의 생애와 정책, 그리고 그의 시대를 둘러싸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이 집필되었다. 또 그의 독특한 성격은 역사학자와 심리학자, 철학자 등의 진지한 탐구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가를 비롯한 예술가들의 상상력도 자극하였다. 한편으로 그는 일방적인 찬양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스탈린의 생애 동안 수많은 거리들이 그의 이름을 딴 것은 물론이거니와 총 여섯 곳의 소련 도시들이 도시 자체의 이름을 바꿔 그를 기릴 정도였다.¹⁾

주 제 어: 그루지아 혁명가, 민족인민위원, 소련 독재자, 수정주의적 견해, 스탈린 전기, 정치국, 총서기

Georgian revolutionary, Commissar for Nationality Affairs, dictator of the Soviet Union, revisionist view, biography of Stalin, Politburo, General Secretary

심지어 대숙청이 한창이던 1937~38년 무렵에는 그의 총복으로서 당시 내무 인민위원이었던 예조프(Н. И. Ежов)가 모스크바를 “스탈리노다르”(Сталинодаp)로 개명하자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스탈린 자신이 이를 거절하기까지 하였다.²⁾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망쳐놓은 악마의 화신이 기도 하였다. 이런 이미지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글라스노스치 정책이 채택되면서 소련식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1980년대 말 이후에 특히 두드러졌다. 이제 스탈린은 더 이상 “사회주의의 위대한 건설자”가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당면한 모든 악의 근원으로서 일방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³⁾

하지만 이처럼 스탈린을 둘러싼 끊이지 않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 극단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그의 생애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주는 적절한 전기는 아직 씌어지지 않았다. 1917년 10월 혁명 이전 그의 삶은 비합법적 지하 활동을 위주로 하는 직업적 혁명가의 특성 때문에 상당 부분 베일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에 소비에트 사회주의 체제가 건설된 후 마침내 권력의 최정점에 도달한 독재자로서의 스탈린 삶도 크레믈 정치로 특징지어지는 소비에트 정책 결정의 은밀한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연구자들 사이에 격심한 논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탈린 생애 전체를 재구성하는 전기를 집필하면서 부딪치는 이러한 어려움은 그가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의 개인적 동기를 밝혀줄 수 있는 어떤 내밀한 사적인 편지나 비밀 일기도 남기지 않았고 또 그의 내면을 들여다본 측근들의 신뢰할 만한 어떤 목격담도 없다는 데도 기인하는 바 크다. 게다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볼셰비키의 특유한 정치 문화는 개인이 자신의 욕망이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데 매우 적대적이어서 스탈린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의 생활이나 그와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해 가능한 한 침묵을 지키라는 암묵

1) 다음의 도시들이 그렇다. 유조프카/스탈리노(1924년), 차리힌/스탈린그라드(1925년), 두산베/스탈리나바트(1929년), 쿠즈네츠크/스탈린스크(1932년), 츠히니발리/스탈리니리(1934년), 보브리키/스탈리노고르스크(1934년).

2) Громан (2007년 3월 1일 인용) 참조.

3) 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Davies(1989)의 5장과 같은 저자가 1997년에 발간한 *Soviet History in the Yeltsin Era*, New York: St. Martin's Press의 12장을 참조하라.

적인 사회적 압력도 받았다(Suny 1991: 48).

그렇다고 지금까지 연구된 스탈린의 삶이 추측과 상상을 위주로 재구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동안 역사가들은 소련에서 공식적으로 간행된 정부와 당의 결의안이나 법령, 정치가들의 주요 회의 속기록과 공식 연설문, 스탈린 사후에 등장한 그에 비판적인 회고록과 소련 내 지하 출판물인 사미즈다트(самиздат), 망명자들의 증언 등에 의존하여 가능한 한 세밀하게 독재자의 삶을 조명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소연방이 몰락한 후 언론의 자유화 바람을 타고 개방되기 시작한 대통령 문서고의 비밀문서 등 새로운 자료들은 스탈린의 생애를 둘러싼 기왕의 논란을 일거에 잠재울 결정적인 정보를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는 하였지만 스탈린의 사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크게 진척시켰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밝혀진 스탈린의 삶은 그가 매우 모순에 찬 복잡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의 스탈린의 생애 전체를 간략히 기술하면서, 확신에 찬 사회주의 혁명가이자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력을 축적한 독재자로서 우리가 갖고 있던 스탈린에 대한 기왕의 여러 이미지와 평가가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해 어떻게 다각도로 수정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관련 학계에 스탈린의 삶을 새롭게 밝혀주는 독창적인 기여는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스탈린 체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체제를 뒷받침해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현 한국의 학계에 그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탈린이라는 독특한 개인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함을 환기시킬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2. 어린 반항아 스탈린: 1878~1893

본명이 이오시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시빌리(Иосиф Висарионович Джугашвили)인 스탈린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879년 12월 21일(구력 12월 9일)(도이처 1972: 14; McNeal 1984: 63; Ulam 1989: 16)이 아니라 그보

다 1년 앞선 1878년 12월 6일,⁴⁾ 카프카스 산맥 남부에 위치한 그루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서 서쪽으로 75킬로미터 떨어진 고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소쇼(Coco)라고 불린 스탈린은 총명하고 부지런하지만 부모의 뜻을 수시로 어기는 반항적이고 호전적인 아이였다. 그는 가정에서 폭군이었던 아버지의 말은 물론이고 엄격하지만 자애로웠던 어머니의 말도 잘 듣지 않았으며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보스 기질은 있었지만 “변덕스럽고, 교활하며, 거칠고, 화를 잘 냈다”(서비스 2007: 50-54). 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스탈린이 집안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일상에서 도전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마침내 체제 전체에 저항하는 혁명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주로 스탈린의 인격 형성기에 가족 관계가 그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하지만 최근 가족의 울타리라는 직접적인 환경 외에도 스탈린이 1912년 반체제 활동의 혐의로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형당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그루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카프카스 지방의 특수한 환경이 청소년 시절의 그의 인성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등장하였다. 그 중의 한 명인 미국인 역사학자 알프레드 리버에 따르면 19세기 말 이 국경 지방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스탈린의 십대와 이십대 초의 시절을 규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Rieber 2005: 19-24). 리버는 스탈린이 태어나던 당시 카프카스 남부의 변경 사회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보았다. 첫째, 외국 및 국내의 적들에 맞선 반란과 음모 및 저항 운동의 장기적인

4) 이 날짜는 러시아인 역사가 스피린(Л. М. Спирин)이 1990년에 처음으로 확정하였다. Известия, 1990년 6월 25일 자에 실린 그의 글 “Когда родился Сталин: поправка к официальной биографии”을 참조 이 날짜는 그의 고향 고리의 교구 기록에 나와 있는데, 스피린에 따르면 1921년 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스탈린은 “자신을 젊어지게 하였다.” 왜 스탈린이 그렇게 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최근 스탈린에 대한 방대한 전기를 집필한 영국의 역사학자 로버트 서비스는 군 징집을 회피하거나 차르의 경찰에게 자신의 혁명 운동 이력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추측한다. 서비스 (2007), 40-41쪽.

전통이 존재하였다. 특히 그루지아는 13~14세기에는 몽골-타타르의 지배를 받았고, 15~17세기에는 여러 왕국들이 서로 경쟁하였다. 또 16~18세기에는 이란과 투르크의 시달림을 받았고, 19세기에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당했다.⁵⁾ 둘째,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다른 어떤 국경 지방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종 및 종교 집단들이 뒤섞이게 되면서 이 지역은 다문화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 사회 구조와 거리의 모습들은 아시아적 특징과 유럽적 특징이 혼재하였으며, 봉건적·가부장적 생활 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다인종적 사회는 민족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인 정당의 탄생을 일차감치 가져왔다. 셋째, 외부의 문화와 지적 조류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유입되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에 지역의 종교 학교나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의 대학 같은 러시아 대학, 그리고 폴란드의 고등 교육 기관에 적을 둔 학생들을 통해 러시아 문학과 유럽의 문학 및 역사, 정치 등이 소개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인민주의와 마르크스주의도 수입되었다. 끝으로, 다양한 인종적 배경을 가진 수공업자,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 사이에 복잡한 상호 작용이 일어났다. 남부 카프카스 지역은 전통적인 수공업이 우세한 가운데에서도 석유와 철도, 건설, 광업 같은 근대적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전근대적 부문과 근대적 부문 양 부문에서 동시에 충원된 노동자 계급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 북부 지방과의 상황과는 관계 없이 1870년대에 독자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등, 노동 운동을 발전시켰고 이는 의식적인 노동 운동 조직가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이런 네 가지 특성들로 정리되는 19세기 후반의 남부 카프카스 지방의 환경은 스탈린에게 어릴 때부터 반항심과 저항 의식을 발달시켰고, 그가 주변의 다인종적·다문화적 상황으로 일차감치 민족 문제에 눈을 뜨는 등, 혁명가가 된 뒤는 물론이고 일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 뒤에도 그의 심성과 행동에 큰 자국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스탈린은 리버에 따르면 한 마디로 “변경 지방의 인간”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Rieber 2001: 1651-1691).

5) 이민족의 점령과 이에 대한 저항 및 반란 등으로 점철된 그루지아의 역사에 대해서는 Suny(1988)의 특히 3장과 4장을 참조하라.

물론 그렇다고 19세기 후반 남부 카프카스의 지배적인 사회 문화적 환경만이 그의 인성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스탈린의 가족적 배경은 그의 독특한 인격 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여기서는 그의 아버지의 거친 품성이 스탈린의 인성 발달에 특히 문제가 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스탈린의 아버지, 비사리온 주가시빌리(Висарион Джугашвили)는 인종적인 배경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루지아어를 말하는, 한 귀족 가문에 소속된 농노 출신이었다(도이처 1972: 13).⁶⁾ 1864년 그루지야 지역에서 단행된 농노 해방 후 그는 구두를 만드는 가난한 직공이 되었다. 직접 가게를 열었지만 실패하고 트빌리시의 구두 공장에 취직하였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데다가 술 고래였고 아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가하였다. 스탈린의 어린 시절 고향 친구의 증언 이래 많은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가혹한 매질이 궁극적으로 스탈린이 무자비한 폭군이 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 친구의 증언을 인용하는 스탈린의 정적 트로츠키(Лев Троцкий)의 해석은 이 점에서 전형적이다. 즉 트로츠키에 따르면, 견딜 수 없는 매질이 스탈린의 일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면서 스탈린을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엄하고 무자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죽었을 때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해방감을 느낄 정도로 상처가 컸던 스탈린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 대한 억압된 증오를 품으면서 “복수를 갈망”하였고, 이러한 반항심은 그에게서 궁극적으로 “자기보다 높은” 모든 권력자와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발로 표출되었다(Троцкий 1995: 26-27).

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는 아버지의 억압적 성격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도 스탈린의 인격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다(Tucker 1973: 76). 어머니 예카제리나 게오르기예브나 겔라제(Екатерина Георгиевна Геладзе)는 고리의 인근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가족은 아르메니아 지주의 정원사들이었다. 예카제리나는 18세에 스탈린의 아버지 비사리온과 결혼하였다. 그녀는 정직하고 유순하며 남편에 순종적인 그루지야 여성성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었

6) 그러므로 스탈린은 공식 여권 상으로는 신분이 농민이었다. 하지만 혁명가가 된 뒤 스탈린은 공장 노동자로서의 경험이 구두 공장에서의 짧은 취업 외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프롤레타리아 출신임을 늘 강조하였다.

지만 아들에 대한 억압과 폭력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과감하게 반기를 들 줄 아는 강인한 여성이기도 하였다. 매우 종교적이었던 그녀는 남편에게 실망한 대신 아들 소소에게 매우 헌신적이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전통적인 민담을 아들에게 들려주곤 하던 어머니는(Rieber 2001: 1657) 아들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비록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이 부담스럽기는 하였지만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던 소소는 그런 어머니에게서 자신의 구원을 보았고 이 점에서 그는 어머니의 큰 영향을 받았다. 즉 어머니의 절제심과 금욕주의적 도덕성이 스탈린에게 그대로 전해졌던 것이다.⁷⁾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트빌리시의 구두 공장에 취직하였던 소소는 어머니에게서 구출되어 고리에서 정교 신학교를 위한 예비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되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소소는 공식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면서도 그루지아어로 된, 비판적 현실주의자나 신낭만주의자들의 문학 작품을 계속 읽는 등 그루지아 문화를 버리지 않았다(Rieber 2001: 1658). 나중에 혁명가로서 소소가 “코바”(Кობა)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할 때 그 가명도 그루지아의 한 낭만주의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러시아의 정복에 저항한 그루지아 의적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⁸⁾

당시 그루지아의 전반적인 지적 풍토는 인민주의의 물결 속에서 마르크스주

7) 폭군 아버지와 이상적인 어머니라는, 스탈린의 어린 시절 가족을 둘러싼 이분법적 구분은 연구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러시아의 소설가 아나톨리 리바코프는 자신의 소설 『아르바트의 아이들』에서 스탈린의 아버지를 가정 내에서 만사를 좌우하는 어머니의 희생양으로서 채플린 같은 소시민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스탈린은 이런 무력한 아버지가 빠진 곤경을 연민을 갖고 바라보는 슬픈 관찰자로서 이 외로운 아버지와 자신을 일치시킨다. 이에 대해서는 Pomper(1990), p. 156 참조.

8) 그 소설은 카즈베기(Александр Казбег)가 1882년에 발표한 『부친살해』(Отцеубийца)이다. 일반적으로 스탈린이 코바를 숭배한 이유가 코바의 차르 억압에 대한 저항과 고국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터키는 그보다는 소설의 중심 테마인 복수가 당국 자체가 불공정한 사회에서 정의를 세우는 행위로서 스탈린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한다. Tucker(1973), p. 80을 보라.

의가 막 유입되고 있던 상태였다. 19세기 중반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농노들이 해방⁹⁾된 데 실망한 그루지아의 지식인들에게 인민주의는 강한 매력을 지녔다. 그리하여 1890년대 초에 마침내 마르크스주의를 포용하기 전에 거의 모든 그루지아 지식인들은 인민주의 시기를 거쳤다.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과연 인민주의 단계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없어 왔는데, 최근에 공개된 자료는 스탈린도 그런 흐름 속에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고리에도 당시 인민주의의 유명한 두 정파인 “인민의 의지”파 및 “토지와 자유”파가 존재했으며, 스탈린은 트빌리시의 신학교로 떠나기 전에 특히 1890년대까지 명맥을 이은 “토지와 자유”파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비록 그가 얼마나 그 조직에 깊숙이 관계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스탈린이 고리에서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지도 여전히 불명확하나, 1890년대 초반까지 그루지아의 지식인들의 대다수가 마르크스주의로 개종하는 분위기에서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ieber 2005: 29-30).

3. 혁명가 스탈린: 1894~1917

스탈린에게 반항아에서 혁명가로서의 전이는 1894년 그가 트빌리시 신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신학교는 반정부 활동으로 유명한 상태였다. 1880년대 말부터 신학교의 일부 학생들은 바르샤바에서 공부하는 그루지아인 유학생 등을 통해 반입된 마르크스주의 서적, 특히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아버지”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플레하노프(Георгий Плеханов)의 초기 글들을 탐독하였다. 1930년대 말에 발표된 소련의 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15세에 “당시 자카프카지예에 존재한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접촉하면서 “지하 마르크스주의 문헌을 맛보았으며,” 그가 읽은 마

9) 그루지아의 농노 해방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Suny(1988), pp. 96-112 참조.

르크스의 『자본론』은 바로 그런 문헌들 중의 하나였다고 회고하였다. 이 공식 해석은 별다른 검증 없이 일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는 이런 설명에 의문을 표시한다. 우선 스탈린이 접촉하였다고 하는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른 어떤 관련 자료에도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정체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또 1930년대 말에 출간된 다른 목격담은 스탈린이 3년 뒤인 1897년에야 신학교에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그룹”¹⁰⁾을 조직하였다고 전한다. 셋째, 다른 문헌이나 증언을 통해 스탈린이 『자본론』을 과연 읽었는지를 입증할 수도 없지만, 설사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스탈린을 마르크스주의자로 개종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왜냐하면 스탈린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위고나 다윈주의 문헌 등 다른 비마르크스주의 문헌들도 광범하게 읽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자가 된 것은 1894년이라기보다는 그 뒤 좀더 깊숙이 지역의 혁명 운동에 관여하게 된 1897~98년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Rieber 2005: 32-34).

한편 신학교 생활은 다른 점에서도 스탈린이 혁명가로 성장하는 데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가난한 가족으로부터 거의 물질적·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교의 교우 관계는 특히 중요하였다. 스탈린은 자신이 관여한 신학교 내의 조직을 중심으로 소수의 친구들 사이에서 열정적인 충성심을 확보하였다.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소수의 친구들과의 밀접한 교우 관계를 맺은 경험은 나중에 혁명가 및 정치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이 권력 투쟁에 돌입할 때 그대로 재연되었다. 즉 그에게는 신뢰라는 가치가 명예만큼이나 중요한 덕목이 되었으며 배신은 가장 큰 죄악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침략과 저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반란과 음모로 점철된 남부 카프카스의 역사적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 혁명가로서의 스탈린의 독특한 인성을 완성 시킨 중요한 요인이었다.

10) 이미 언급한 대로 1880년대 말에 마르크스주의 서적을 읽는 신학생 그룹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도 옳바르지 않다.

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신학교 시절 동안 학교 내에서 금지된 책을 동료들과 함께 읽고, 낭만적인 시를 쓰는¹¹⁾ 등, 상대적으로 온건한 행동만 한 것이 아니었다. 스탈린은 신학교 시절의 막바지였던 1890년대 말에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트빌리시의 혁명 운동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것은 1898년 트빌리시에서 발생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때 명확히 드러났다. 스탈린이 1920년대 중반 트빌리시의 철도 노동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회고하였듯이, 그 때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처음으로 한 무리의 철도 노동자들을 책임지는 지도자가 되었다(Сталин 1953b: 174). 스탈린이 속한 정치 그룹은 이른바 트빌리시의 마르크스주의 조직인 “메사메-다시”(Месаме-даси, 제3세대)로서 그는 그 곳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밝혀진 바는 이러한 공식적인 설명에 의문을 던진다. 우선 메사메-다시의 지도자는 스탈린이 아니라 케츠호벨리(B. 3. Кецохвели)라는, 학교 선배로서 몇 년 전 동맹 파업으로 8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떠나야만 했던 노련한 혁명가였다. 메사메-다시는 1897년 케츠호벨리가 트빌리시에 나타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1년 뒤에 가입한 스탈린은 그의 조언을 받는 뜻 내기에 불과하였다. 1898년 여름의 철도 노동자 파업의 경우도 일부 목격자는 이 파업이 노동자 자신들에 의해 조직되었으며 스탈린의 역할은 기껏해야 주변적이었다고 증언한다. 스탈린은 케츠호벨리의 지도 하에 처음으로 노동자들과 접촉하면서 5~6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의 기제”와 “노동자 지위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치 투쟁을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Rieber 2005: 35-36). 이런 맥락에서 스탈린이 이듬해 1899년 5월 신학교를 그만둘 때의 상황도 다르게 설명된다. 스탈린 자신을 비롯한 공식 전기는 마르크스주의 선전 활동 때문에 신학교에서 퇴학당했다고 주장하나 당시의 학교 측의 공식 기록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험을 보지 않고,” 수업료를 내지 않아서 퇴학당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퇴학당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의 비참한 생활을 견

11) 시인으로서의 스탈린의 면모는 그 동안 거의 무시되어 왔으나, 로버트 서비스는 낭만적인 문체로 자연과 대지, 애국심을 다룬 그의 시가 당시 지역 문단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되었음을 밝힌다. 서비스(2007), 79-81쪽.

딜 수 없어서(Litvin 2005: 33) 혹은 신학교 내에서의 반항적 태도나 성적 부진으로 학교를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분석도 있다(서비스 2007: 84-86; Pomper 1990: 166).

여하튼 신학교를 그만 둔 뒤 스탈린은 트빌리시의 혁명 활동에 점점 더 연루되기 시작하였다. 공식 전기에 따르면, 스탈린은 1900년부터 트빌리시의 러시아 사회민주 노동당 위원회를 지도하면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 비밀 인쇄소를 경영한 케츠호벨리에게 계속 지시를 내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트빌리시에서 그의 위치는 여전히 취약했다. 왜냐하면 경찰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스탈린이 트빌리시 위원회에 선출된 것은 2년 뒤인 1902년에 이르러서였고, 12) 바쿠의 인쇄소는 케츠호벨리와 나중에 유명한 볼셰비크가 된 아벨 예누키제(Авель Енукидзе)를 비롯한 일단의 다른 인물들에 의해 그 전부터 이미 잘 경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인쇄소를 조직하고 경영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하기는커녕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의문을 품을 수 있다. 또 1900년에 트빌리시 노동자들 사이에 혁명 활동이 활성화된 것은 완전히 신참이었던 스탈린이 합류해서가 아니라 이미 노련한 활동가였던 칼리닌(М. И. Калинин)을 비롯한 일단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그해 트빌리시와 바쿠에 도착하면서 새로운 기운을 얻었기 때문이다.

1901년 스탈린은 트빌리시 위원회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고 투르크 국경으로부터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그루지아의 또 다른 도시 바투미로 옮겼다. 당시 바투미에는 어떤 사회 민주당의 조직도 없었으나 사회 민주주의 선전에 종사하는 일부 그룹은 존재하였다. 스탈린에 호의적인 설명에 따르면, 스탈린은 1902년 2월과 3월에 바투미에 발생한 일련의 파업에서 미래의 볼셰비크 선동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설명은 이 파업은 스탈린이 도착하기 전에 존재한 합법적인 일요 학교 운동의 사회 민주주의적 선전 활동에 영향을 받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비참한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바투미에서 스탈린은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활동에

12) 1901년 11월이라는 주장도 있다. Pomper(1990), p. 167을 보라.

중시하는 “이론가”(теорик)로서보다는 비밀 실천 활동에 중시하는 “음모적 혁명가”(практик)의 행태를 보였다. 왜냐하면 교육적 배경이나 기질적으로 그는 “자연 과학이나 사회학, 문화”를 노동자들에게 강의하는 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트빌리시에서 바투미로 온 노련한 활동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선언문을 인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이 과연 사회민주당의 바투미 위원회 위원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왜냐하면 1902년 바투미 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그 위원장은 스탈린이 싫어하던 미래의 멘셰비크 니콜라이 츠헤이제(Николай Чхеидзе)였기 때문이었다. 여하튼 스탈린은 1902년 체포되어 시베리아로 유배되는 바람에 그의 바투미 시절은 곧 끝나고 말았다. 그 후 바투미 위원회는 그루지야 멘셰비키의 아성이 되고 스탈린은 바투미를 완전히 떠나 바쿠에서 주로 활동하였다(Rieber 2005: 37-42).

1903년 가을 스탈린은 그루지야를 떠났으나 1904년 2월 바이칼 호 근처에서 탈출하여 트빌리시로 돌아왔고 그 곳에서 남부 카프카스 전역을 돌아다녔다. 그 후, 특히 1908년 이후 스탈린은 1912년 바쿠에서 체포되어 다시 시베리아로 장기간 유형 당할 때까지 여러 번 체포와 유배, 그리고 탈출을 반복하였다. 이런 이유로 차르의 비밀경찰인 오흐라나(Охрана)가 그를 첩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탈출을 도왔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를 면밀히 검토한 연구자들은 주장의 근거가 된 문서가 날조되거나 혹은 잘못 이해된 것으로 밝히면서 결국 오흐라나의 첩자라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Litvin 2005: 34-35). 한편 스탈린은 혁명 후인 1919년에 나제주다 알릴루예바(Надежда Аллилуева)와 결혼하기 전인 1902년과 1904년 사이에 한 동료의 여동생인 스마니제(Екатерина Сванидзе)와 결혼하여 1908년 아들 야코프(Яков)를 두었으나 부인은 출산 직후 사망하였다. 익숙하지 못한 바쿠에서 활동하면서 결혼생활에서 안정을 찾고자 했던 그는 해체된 가족 대신에 일단의 동료들과 형제애에 바탕을 둔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¹³⁾

13) 키로프(С. Киров), 보로실로프(К. Е. Ворошилов), 오르조니키제(Серго Орджоникидзе), 미코얀(Анастас Микоян), 예누키제(Авель Енукидзе) 등이 그들이다. 나중에 이들은 스탈린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충실한 협력자가 되었다. Rieber(2001), p. 1661을 보라.

스탈린이 1907년 6월 당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트빌리시 중심가의 한 우체국을 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모든 역사가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사회민주당이 그 전에 공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금지하였지만, 1905-06년 러시아 혁명 당시 많은 마르크스주의 그룹들이 은행 강도를 통해 기금을 마련한 사실을 감안하면 스탈린의 행동이 꼭 돌출적인 것만은 아니었음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그는 이 사건으로 당에서 축출될 위기에 놓였으나 레닌이 이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Островский 2004: 212-216, 246; 서비스 2007: 142). 이 즈음 스탈린은 런던에서 열린 제5차 사회민주노동당 대회에 참석하고 난 뒤 바쿠에 도착하였다. 1907년 스톨리핀(Петр Столыпин)의 6·3 쿠데타 이후 반동의 물결이 러시아 전역을 휩쓸 때 바쿠에서 스탈린이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트로츠키가 말하고 있듯이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Троцкий 1985: 167). 스탈린은 바쿠에서 자신이 “선진적인” 유전 노동자들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혁명의 두 번째 세례를 받고 “혁명의 직인”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다(Столпин 1953b: 174). 실제로 스탈린은 바쿠에서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은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사회민주당이 노동조합을 장악할 것을 강력히 역설하면서 멘셰비키를 공격하고 또 정부 당국의 노사협조 분위기 조성 노력에 맞서 총파업을 호소하는 등, 볼셰비키 사이에서 지하 당 조직을 관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가 중의 한 명으로 성장한 것은 확실한 듯하다(Suny 1972: 373, 382, 387).

바쿠에서의 이러한 비타협적이고 정력적인 활동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그 후 중앙의 권력 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탈린은 1912년 레닌에 의해 볼셰비키 중앙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것은 그가 남부 카프카스에 국한된 지역 활동을 끝내고 마침내 전국적인 차원의 인물이 되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그는 막 창간된 대중적 당 기관지인 『프라브다』(Правда)를 편집하고 거기에 글을 썼다. 그리고 1912년 말부터 그 때까지 즐겨 쓰던 코바라는 가명을 버리고 강철의 의미를 지니는 스탈린이라는 가명을 쓰기 시작하였다.¹⁴⁾ 1913년 초에는 레닌의 요청에 따라 오스트리아령 폴란드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고, 주로 빈에 머무르면서 민족 문제에 관한 소책자를

썼다. 이 체류는 2차 세계대전 때까지 스탈린이 행한 마지막 해외여행이었고, 일생 동안 가장 긴 해외 체류였다. 소책자에서 그는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옹호 하였으나 러시아인 중심의 통합도 강력히 지지하였다. 이 글로써 스탈린은 1907년 바쿠 시절 시작 때부터 진행되어 온,¹⁵⁾ 그루지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죽이고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전면에 드러내는 일을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13년 3월 스탈린은 오호라나에 의해 체포되어 4년의 유형 형을 받고 그 해 7월 동부 시베리아로 추방되어 그 곳에서 1917년 2월 혁명 때까지 머물렀다. 2월 혁명 직후 페트로그라드에 도착한 스탈린은 레닌이 4월 러시아로 돌아올 때까지 임시 정부에 대한 인정 등 타협적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레닌의 “4월 테제” 이후 당내에서 쏠아지는 레닌에 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건한 입장을 버리고 좀더 혁명적인 레닌의 노선을 과감히 추종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말해지듯이 스탈린이 1917년의 두 혁명 시기 동안 레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평가에 따르면, 그는 4월 테제를 수용한 뒤에도 여전히 레닌이 주장한 “토지의 전면적인 국유화” 대신 토지의 무조건적인 농민 양도를 주장하였고, 또 “제국주의 전쟁의 내전으로의 전화”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나아가 트로츠키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10월 혁명의 수행 과정에서도 스탈린이 한 역할이 반드시 과소평가될 것도 아니다. 그는 4월에 새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0월 혁명 때까지 『프라브다』의 후신인 『노동자의 길』(Рабочий Путь)의 편집자로 활동하면서 비록 결정적인 순간에 무장 봉기에 반대한 카메네프(Лев Каменев)의 입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트로츠키의 공격을 받을 빌미를 제공하기는 하였지만(Троцкий 1953: 307-309), 중앙 위원으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다.¹⁶⁾

14) 스탈린은 “코바”나 “스탈린”이라는 가명 외에도 “카토”, “케코”, “스테판” 등 많은 다른 가명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Rieber(2001), pp. 1678-1681을 볼 것.

15) 스탈린은 1906년까지는 그루지야어로 글을 썼으나 1907년부터는 러시아어로 글을 발표하였다. Rieber(2001), p. 1682의 표 참조.

4. 혁명가에서 독재자로: 1918~1929

10월 혁명 후 내전과 NEP 시기를 거치면서 스탈린은 점점 당내의 일인자가 되어 갔다. 그는 1920년대 말까지 이른바 “좌, 우익 일탈파”를 물리치고 당내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1930년대 이후에 보일 전체 군주적 독재자로서의 모습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닦았다. 많은 연구자들은 1920년 대 동안 스탈린이 궁극적으로 승리한 까닭을 그의 “기회주의적 처신” 덕분으로 묘사해 왔다. 즉 레닌의 사망 이후 그의 후계자가 되기를 열망한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위시한 당내 좌파를 물리치기 위해서 부하린(Н. И. Бухарин)의 사회주의 건설 논리를 지지 하면서 1927년까지는 좌파를 축출하고, 그 후 우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프레오 브라젠스키(Евгений Преображенский) 등 좌파의 논리를 빌어 1929년까지는 그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¹⁷⁾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 장악을 위해 아무 원칙도 없이 변덕스럽게 행동한 정치가가 아니라 나름의 일관된 사상과 정책을 보여준 인물이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18년부터 1923년까지 민족인민위원회 인민위원을 지낸 스탈린은 레닌이라는 당내 최고의 권위자에게서 신뢰를 상실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의 “민족 자결 원칙”에 과감히 맞서 자신만의 민족 정책을 추진 하였다. 레닌의 민족 자결 원칙에 대한 스탈린의 반대는 혁명 1주년 때인 1918년에 이미 민족 자결을 “넓은 슬로건”으로 선언하면서 시작되었다. 1920년 말에 스탈린은 이것을 더욱 구체화시켜 “변경 지역을 러시아로부터 분리시키자는 요구는 ... 바로 중앙과 변경 지역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선 중앙과 변경 지역의 사람들 모두의 이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Сталин 1953a: 158, 352).

16) 이 점을 특히 강조하는 서비스(2007), 258-268쪽을 참조.

17) 이런 주장 중 가장 전형적인 것을 위해서는 Daniels(1972), pp. 22-39를 보라.

이러한 차이는 1922년 후반 그루지야 문제를 둘러싸고 레닌과 스탈린 사이에 벌어진 유명한 논쟁에서 결정적으로 표면화되었다. 민족 문제의 전문가로서 스탈린은 내전이 끝난 후 신생 국가의 항구적인 헌정 구조를 짜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이 일은 남부 카프카스의 세 지역인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그루지야의 연방으로의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큰 난관에 부딪혔다. 스탈린은 이 세 지역을 우크라이나나 벨로루시처럼 바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РСФСР)에 편입시키고 싶었던 반면, 레닌은 “유럽과 아시아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을 창설하기를 원하였다. 이것은 스탈린이 다른 인종 지역을 러시아 공화국에 종속시키기를 희망하였지만 레닌은 그들 둘 사이를 좀더 동등하게 다루고 싶어 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mith 2005: 53-54). 이런 의미에서 레닌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경계하였고, 스탈린은 비러시아 민족주의를 경계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922년 11월에 있었던 오르조니키제(Серго Орджоникидзе) 일파의 그루지야 공산주의자 폭행 사건을 스탈린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찍이 1960년대에, 레닌이 병상에 있던 1920년대 초반의 당내 갈등을 분석한 저명한 역사가 르윈은 비록 이 폭행을 스탈린이 직접 시주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레닌의 “유언”을 빌어 스탈린의 “대러시아 국수주의”가 결국 이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는 한 배경이 된 것처럼 묘사한다. 게다가 스탈린과 오르조니키제는 나중에 스탈린의 충실한 심복이 되는 카가노비치(Лазарь Каганович), 몰로토프(В. М. Молотов), 쿠이비셰프(В. В. Куйбышев) 등과 마찬가지로 이론보다는 행동을 중시하는 실무적 타입의 “혁명의 실천가”들이라는 점에서 기질적으로도 일치한다(Lewin 1968: 43-63).

그러나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분석이 사태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이 주장은 신생 국가의 헌정 구조를 둘러싼 레닌과 스탈린의 대립이 스탈린이 레닌의 안을 받아들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СССР)을 창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중국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내용적으로는 러시아 공산당이 각 민족 공화국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위 기구의 역할을 하더라도 말이다(서비스 2007: 370). 나아가 “유언”에서 레닌이

스탈린을 비난할 때의 초점은 민족 문제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총서기로서의 자질이였다. 즉 레닌은 스탈린이 이 폭행 사건을 은폐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는 것이다. 한편 스탈린은 오르조니키제가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에게 강요한 “자카프카지에 연방” 안의 입안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오르조니키제의 주도 하에 만들어졌으며, 오르조니키제는 러시아 공산당 내에서 자카프카지에 지역 문제를 담당한 카프부로(Кавбуро)의 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물론이고 스탈린이 위원으로 있던 러시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연방 안은 르윈이 말하는 대로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스탈린의 피의 복수극”이 아니라 철저히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따라 구상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루지야 공산주의자들도 연방 안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그루지야인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르조니키제가 서둘러 연방 안을 밀어붙인 그 사실만을 주로 문제 삼았다(Smith 1998: 519-544).

스탈린이 1920년대에 좌우파의 “일탈”을 물리치고 최고 권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보인 사상적·정책적 일관성 중에서 우리는 “일국 사회주의론”도 무시해서 안 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20년대 중반에 스탈린은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에 반대하여 다른 나라에서의 혁명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러시아에서 단독으로 사회주의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주장은 1927년 제15차 당 대회에서의 표결 결과 스탈린의 노선이 당의 기본 노선으로 확정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당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물론 상당수의 당원들이 1917년 혁명 이후에 입당함으로써 고참 볼셰비키와는 달리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인 세계 혁명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전쟁과 내전, 그리고 잇단 기근으로 피폐해진 러시아 인민이 전반적으로 혁명의 지속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 데 큰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탈린이 순전히 일반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갑자기 아무런 사상적 기반 없이 이 이론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최근의 연구는 세계 혁명과 관계없이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상이 러시아의 경우만 따지더라도 1915년의 레닌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초반의 부하린도 이 이론에 단초를 제공하였음을 입증한다. 덧붙여 1924년 말에 스탈린은 처음으로

이 사상을 제시하였을 때 이 이론이 당원들 사이에 큰 동조를 일으키면서 트로츠키와의 투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Layton Jr. 1983: 80-84; Cohen 1980: 147-148, 187-188; van Ree 2005: 167-168).¹⁸⁾

한편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스탈린이 1920년대 동안 독재자로 부상할 있었던 까닭은 “모사의 달인”으로서 그의 노회한 “행정적·조직적 수완” 때문이었다. 즉 레닌의 추천으로 1922년 총서기가 된 스탈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추종자들을 당의 요직에 배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총서기로서 당내 주요 직책의 인사권을 장악한 스탈린은 자신을 지지하는 충성스런 당원들을 직접 주요 직책에 임명함으로써 연방 공화국 및 하급 단계에서 일하는 당 서기들을 통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은 상급 당 기관과 당 대회들에 보낼 대의원을 선출하는 데 강력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다. 바로 이들 당 대회에 파견될 대의원의 선출을 통제하는 일은 스탈린의 성공에 결정적이었다. 즉 이들은 당의 주요 기관으로서 국가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당 중앙위원회를 뽑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툼슨 2004: 320).

하지만 미국인 역사학자 해리스는 총서기직이 스탈린의 부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스탈린이 총책임자로 있는 당 서기국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당 간부들의 배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스탈린이 서기국을 이용하여 직접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증거도 거의 없다. 대신 스탈린은 트로츠키 같은 경쟁자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당내 민주주의(분파주의)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여 경쟁자들이 자신들의 사상을 당원들 사이에 유포하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당 관료들은 스탈린의 “분파주의에 대한 투쟁”을 자신들 사이의 권력 투쟁에 적용하였다. 즉 1920년대 동안 분파 투쟁은 당 정치국 지도부 사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소비에트 국가를 창출하고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쟁은 모든 수준에서 발생하였다. 지역의 당 관료들은 하급 부

18) 반 리는 일국 사회주의론의 서구 마르크스주의 기원을 독일 사회주의자인 게오르크 볼마르(Georg Vollmar)와 카를 카우츠키(Karl Kautsky)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였고, 서기국의 개입은 이런 경쟁을 완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기 일쑤였다. 이 때 총서기로서 스탈린이 취한 분파주의 금지 조치는 바로 지역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경쟁자를 억압하는 데 적절한 무기 구실을 하였다. 당연히 스탈린은 그들의 환영을 받았고 당 관료들은 생존을 위해 스탈린을 지지함으로써 그의 집권에 궁극적으로 기여하였던 것이다(Harris 2005: 63-82).

이런 식으로 1920년대 동안 당 내의 일인자로 등장한 스탈린은 급속한 산업화 및 강제적 집단화로 대표되는 1928~29년의 이른바 스탈린 혁명의 와중에서 자신의 유력한 경쟁자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독재자가 되는 데 성공하였다.

5. 독재자 스탈린: 1930~1953

그리하여 1920년 대 말 이후 스탈린이 독재적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는다. 1929년 12월 “50회 생일”에 즈음해서 스탈린은 소련의 신문지상에 열흘간에 이르는 집중적인 찬사를 받음으로써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전 국민의 지도자로서 공개적으로 찬양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스탈린 숭배는 그 후 시, 소설, 영화, 음악, 회화, 조각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고, 2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무오류의” 독재자로서의 스탈린에 대한 이미지가 소련 국민들 사이에 거의 완성되었다(툼슨 2004: 392-394). 하지만 주요 반대파들을 제거함으로써 스탈린에게 주어진 독재 권력이 바로 절대적 권력으로 등치되어서는 안 되며, 이 점에서 1930년대 이후 시기 별로 독재의 정도와 독재의 메커니즘 등을 둘러싸고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스탈린 독재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은 그가 위원으로 있던, 서방국가의 내각에 해당하는 정치국이다. 정치국은 1930년대 동안 세 차례 개편되면서 조금씩 그 구성을 달리 하였지만, 기본적으로 9~10명으로 이루어진 정위원과 그보다 적은 수의 후보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¹⁹⁾ 우선 독재의 정도와 관련하여 많은 학